

28. 로봇착유기 도입시 장 · 단점은?

로봇착유기는 하루에 2회 이상 착유하는 작업에서 낙농가를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것을 로봇착유기에 맡겨 두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체세포수 증가, 번식문제, 발굽문제, 사료섭취량 문제 등 무수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. 로봇착유기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로 또는 매일 컴퓨터에 수집된 정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입니다. 즉, 로봇착유기 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젖소 개체별 착유 유무, 사료섭취량 및 체세포수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. 고가의 로봇착유기로부터 착유작업의 편리성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에 낙농가는 그 정보를 받아 현재의 수준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목장을 경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. 로봇착유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<표>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착유기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로봇착유기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
〈로봇착유의 장 · 단점〉

장 점	단 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힘든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 ○ 여유 노동력을 이용한 체험목장 운영 등 고부가가치 창출 ○ 착유횟수 증가로 산유량 증가 ○ 각종 다양한 수집정보의 활용으로 과학적인 사양관리가 가능 ○ 체세포수 감소에 대한 효과는 의견이 상반됨 ○ 대기장과 착유실의 소요면적이 적음 ○ 젖소 생체정보 이용이 가능하여 정밀한 젖소 관리가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로봇 1대당 착유우 60두 내외 이용이 가능하므로 60두 이상 착유시 로봇 착유기 추가 설치 문제 대두 ○ 착유로봇 관리를 위해 컴퓨터 숙련 필요 ○ 값이 비싸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함(1대 설치시 3억5천 ~ 4억5천 소요) ○ 고장시 신속한 A/S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유방염 등 피해 우려 ○ 새로운 목장관리 시스템에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로봇착유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는 도태해야 함

(낙농과 / 041-580-3381)